

# 11월의 사슴 사양관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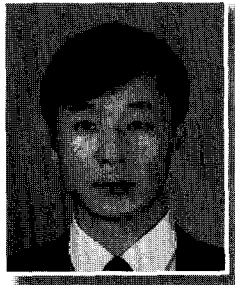
## ○ 수사슴의 사양관리

11월이 되면 엘크와 레드디어는 교미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꽃사슴의 경우 10월말부터 11월에 가장 많은 교미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태율을 높이고 번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엘크와 레드디어의 경우 종록이 허약하다고 판단될 때 후보종록으로의 교체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록으로 이용한 사슴은 분리후 따로 격리하여 사육하는 것이 투쟁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사료작물인 연맥이나 유채를 급여하는 농가는 서리가 오기 전에 이들 작물의 수확을 끝내야 한다.

수사슴은 번식계절이 지나면 사료의 섭취량 및 체중의 변화가 봄철까지 큰 변화가 없으므로 가을철의 일일 사료 소요량을 계산해 두면 겨울철 동안의 사료 소요량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록에서 제외된 사슴은 그들 무리에서의 사회적 서열로 허약축의 발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



김 상 우 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한 관찰로 허약축이나 사나운 사슴은 따로 분리하여 사육하는 것도 11월의 수사슴관리의 하나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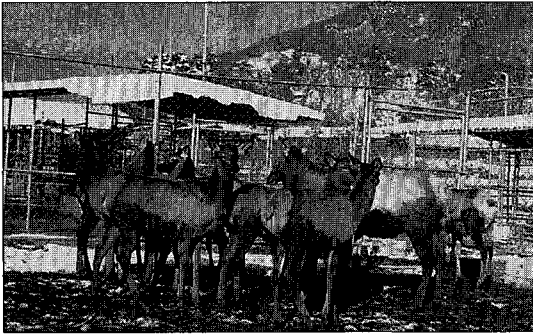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11월은 환절기로 사슴의 호흡기질병의 발생이 염려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북풍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의 설치도 월동 준비의 한 부분이다.

## ○ 암사슴의 사양관리

교미가 되고난 후 수정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미의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고 세포분열을 하면서 태아가 자라게 된다.

임신 초기단계에 태아 발육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므로 사료의 급여량을 늘려줄 필요는 없으나 초기에 착상된 태아가 유산이 되지 않도록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암사슴의 사양관리는 조사료 위주의 사양관리가 바람직하지만 급여하는 조사료의 질에 따라 일정량의 농후사료 급여도 필요하다. 요사이 일부 사슴농가에서 두부공장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비지의 이용률이 늘고 있는데 비지에는 수분 함량이 85%정도이고 조단백질은 4.6%정도로 영양적인 가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소에서는 소화율이 높은 편이다. 아주 추운 겨울의 경우, 급여한 비지가 얼 염려가 있으므로 급여량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어디까지나 농후사료의 보조사료로 일정량을 급여한다면 이것도 생



▲ 아주 추운 겨울 사료가 얼 염려가 있으므로 급여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산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료의 변경에는 항상 일정기간(10일 정도)을 두고 서서히 바꾸어 주는 것은 사료급여에서 명심해야 할 첫번째 사항이다.

### ○ 기타

사슴 분양철이 시작됐다. 사슴의 구입과 판매, 사슴의 이동이 활발해질 시기이다. 암 사슴 사육에서의 주 소득원은 자록 판매에 있다. 사육농가는 누구나 좀 더 높은 가격의 판매를 원하고 구입자는 반대의 생각을 할 것이다. 사슴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내 현실상 사슴 유통에 관여하는 중개인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가끔씩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유통상의 분쟁으로 그 동안 양록 업계는 적잖은 불신풍조가 생기기도 했다. 정당한 가격, 적절한 이윤수수료 등으로 율 분양철은 서로를 불신하는 병폐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격적인 분양철이 다가오면서 사슴이동시 폐사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사슴을 사슴상자에 몰아 넣다가 가끔씩 마취사고가 발생하고 사슴장에 몰아 넣다가 도망가는 현실도 목격한다. 흥분한 사슴에 썩시콜린 투여는 가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흥분된 사슴에는 주의를 요한다.



▲ 사슴 이동시 최대한 안정을 시켜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을철이 되면 수사슴의 체중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조그마한 실수가 재앙을 부르며 세심한 주의는 안전을 가져온다. 또한 장래성이 없는 사슴에 대한 과감한 도태도 분양철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민득림**